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韩国语 泛读教程

下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学生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H559.4
60
(2)

外研社 走遍



韩国语 泛读教程

下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学生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韩国语泛读教程: 下. 学生用书 / 韩国新罗大学, 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 10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ISBN 978-7-5600-7021-6

I. 韩… II. ①韩… ②中… III. 朝鲜语—阅读教学—教材 IV. H559.4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163778 号

出版人: 于春迟

责任编辑: 李晓明

封面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址: <http://www.fltrp.com>

印刷: 北京京科印刷有限公司

开本: 787×1092 1/16

印张: 20.75

版次: 2007 年 10 月第 1 版 2007 年 10 月第 1 次印刷

书号: ISBN 978-7-5600-7021-6

定价: 36.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编委会成员

主 编 李埰衍 (韩)(韩国 新罗大学)

副主编 徐永彬 (对外经济贸易大学)
崔顺姬 (北京语言大学)

编 者 李埰衍 (韩)
徐永彬 崔顺姬
金罗娟 (韩) 赵炳映 (韩)
申润卿 (韩) 金美淑 (韩)
金洙泰 (韩) 申恩琮 (韩)
赵贞顺 (韩) 金昌九 (韩)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领域的交流日益频繁，近年来在中国掀起了一股学习韩国语的热潮。虽然中韩两国的教授和学者为满足广大韩语学习者的需要编写了大量的教材和辅导用书，但至今仍没有一套完整的韩国语泛读教材供韩国语专业高年级的学生使用。为此，外研社与韩国新罗大学、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共同推出了这套韩国语泛读教材——《韩国语泛读教程》。

《韩国语泛读教程》分上、下两册，每册配有一本辅导用书。本套教材具有以下几个鲜明的特色：

1. 内容丰富。精选了文学、经济、社会等众多领域的多篇文章。
2. 体裁多样。囊括了小说、诗歌、随笔、广告、漫画等多种体裁形式。
3. 选材新颖，时代感强，具有较强的趣味性和实用性。
4. 每课课后都配有大量练习，重点培养学生用韩国语思考问题和解决问题的能力。
5. 配有辅导用书，便于教师教学和学生课后自学。

本教材既适合韩语专业高年级学生课堂教学使用，也适合于韩语爱好者作为课外阅读材料使用。希望本套教材能够对广大韩语学习者有所裨益。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年10月

前 言

中韩两国于1992年正式建立外交关系,迄今已有15年的历史了。15年来,两国在经济、政治、文化等方面开展了广泛而深入的交流活动,在友好合作的基础上,增进了双方的相互理解。随着韩国企业大规模地进入中国市场,中国人在韩资企业就业的机会不断增加,因此社会上对于韩国语的需求也不断扩大。尤为值得一提的是,韩国的传统价值观和影视文化相结合,形成了具有韩国特色的文化现象——韩流。韩流的出现大大激发了人们对韩国语和韩国文化的好奇心和求知欲。

目前,国内学习韩国语的动机逐渐倾向于就业、留学等实用目的,其需求规模大大高于除英语、日语以外的其他语种。特别是近年来,由于赴韩求学的中国留学生人数急剧增加,开发出一整套能够适合这些学生特点的教学方法及教材已经成为燃眉之急。

为了适应这种环境变化,我们开发了这套韩国语教材,这是专门为中国的学习者量身定做的标准韩国语教材。迄今为止,虽然韩国语教材很多,但是专为某一国家,或专以留学、就业及考试等为特定目的而编写的教材却十分罕见。

本套教材曾在2006年2月以《유학생을 위한 특목 되는 한국어》为题,在韩国出版了6册,此次外研社出版的是该套教材的中文版本。其中1-4册定名为《走遍韩国》,5-6册定名为《韩国语泛读教程》。

《走遍韩国》包括学生用书4册和辅导用书4册,共8册。教材中收录的听力资料均由韩国顶级配音演员录制,并制作成MP3文件附于书后。1-2册为基础韩国语,3-4册以日常生活韩国语为主。书中所收录的主题均与韩国的日常生活紧密相关,因此可以很方便地实际生活中加以运用。如交友、聚会、租房、在银行开户等基础性的情景会话,以及说明文、记叙文、发言稿、公司面试用语等高级生活韩国语。

《韩国语泛读教程》共4册,包括学生用书和辅导用书各2册。本教程通过精选的阅读材料,致力于培养学生的高级韩国语能力。其体裁涵盖诗、小说、报道、广告、评论等,内容包括经济、政治、文化等,涉及的范围相当广泛,可以让学生较深入地了解韩国。

本教材同时也是互为姊妹学校的韩国新罗大学和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之间开展学术交流活动的实际成果。衷心希望本教材能够对中国国内众多的韩国语学习者有所帮助。

最后,谨向为本教材出版给予大力支持的韩国新罗大学校长郑弘燮、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校长陈准民、外研社社长于春迟以及孙艳杰等韩国语编辑部的全体人员致以深深的谢意!

韩国 新罗大学 教授 李埰衍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教授 徐永彬

2007年10月



目录

목차

1 정보 전달하는 글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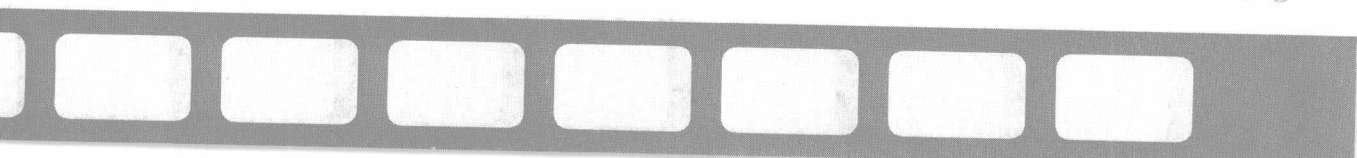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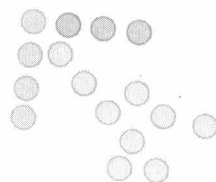
.....	1
(1) 따뜻한 부모 되기	2
(2) 한복에 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7
(3)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11
(4) 한국 대중음악의 큰 별	18

2 시 읽기

.....	23
(1) 서시	24
(2) 즐거운 편지	26
(3) 그 여자네 집	29
(4) 시집살이 노래	36

3 시사적인 글 읽기

.....	39
(1) '왕따'가 아니라 '깍두기'를	40
(2) 만약 TV가 없다면	45
(3) 게임의 사회성	51
(4) 외모 지상주의의 함정	56



目录



4 단편 소설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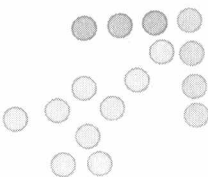
.....	61
(1) 봄 · 봄	62
(2) 황소와 도깨비	80

5 신문 읽기

.....	93
(1) 만화로 보는 시사	94
(2) 텔레비전 프로그램 안내	97
(3) 지구 생태계 40%밖에 안 남아	101
(4) 패키지 여행 100배 즐기기	105

6 중편 소설 읽기

.....	111
여덟 개의 모자로 남은 당신	112



目录

7 한국문화 이해하기(Ⅰ)

.....	145
(1) 강강술래	146
(2) 판소리란 무엇인가	149
(3) 김홍도의 <씨름>	153
(4) 가장 순수한 사랑 : <오아시스>	161

8 한국문화 이해하기(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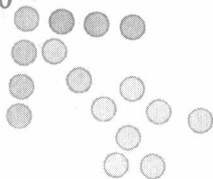
.....	171
(1) 복을 부르는 세시풍속	172
(2) 근정전의 비밀	177
(3) 낮설게 하기	181

9 회곡 읽기

.....	185
맹 진사 덕 경사	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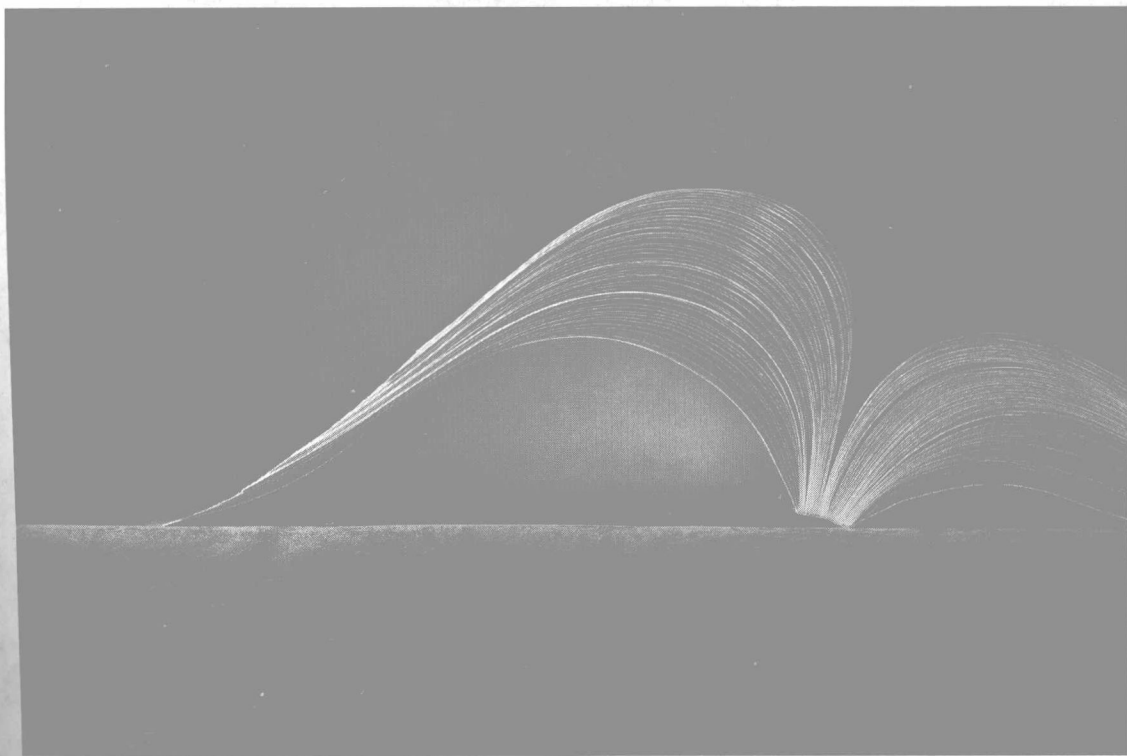
附录

.....	207
单词索引	208
韩国语能力考试模拟题 1	230
韩国语能力考试模拟题 2	270



1. 정보 전달하는 글 읽기

- (1) 따뜻한 부모 되기
- (2) 한복에 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 (3)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
- (4) 한국 대중음악의 큰 별



(1) 따뜻한 부모 되기

읽기 전에

1.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글 읽기

따뜻한 부모 되기

이민정

영준이는 중학교 2학년이다. 지난밤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전이 있었다. 영준이는 어머니께 깨워 달라고 부탁하고 잤다. 평소대로라면 다음날 아침에 오고 갔을 대화내용이다.

영 준 : (불멘소리로) 엄마 ! 어젯밤에 깨워 달랬는데 왜 안 깨웠어 ?

어머니 : (어이없어 하며) 깨워도 네가 안 일어났잖아 !

영 준 : 여러 번 흔들어 깨웠으면 됐잖아 ! (심통스럽게) 어떻게 됐어 ?
우리나라가 이겼어 , 졌어 ?

아버지 : 엄마도 그냥 잤는데 어떻게 알아 . 사내 녀석이 아침부터 신경질
부리지 말고 빨리 학교 갈 준비나 해 !

영 준 : 알았어요 . (통탕거리며 방으로 들어간다 .)

아버지 : 아니 , 저 녀석이 !

보고 있던 남편이 아들 방으로 뒤쫓아 들어가려 하자 영준이 어머니는 눈을 흘기며 말한다 . 아침부터 가족 모두의 기분은 뒤죽박죽 될 수밖에 없



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말을 하면 영준이가 편안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

통탕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는 영준이는 안정이 깨어진 상태다. 영준이처럼 어떤 일로 안정상태가 깨어지면 감정이 홍수를 이루어 생각하는 힘이 약화된다. 이런 상태에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어떤 학자는 감정이 악화될 때는 지능지수가 20-30 떨어진다고 한다. 이때 부모가 자녀를 잘 도와주면 안정을 되찾게 되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상처를 잘 치료해 주면 건강을 되찾아 더 멀리 힘차게 달릴 수 있게 된다.

아델리 화버와 에레인 매즈리쉬는 자녀의 악화된 감정을 잘 풀어 주기 위해 부모가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째, 관심을 갖고 조용히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 준다.

둘째, 자녀의 말을 인정해 준다.

“오, 음, 그래, 그랬어, 그렇구나.” 등의 말을 함께 하면서.

셋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상상으로 표현해 준다.

“지금 당장 네가 보고 싶은 것을 보여 주고 싶어.”

넷째, 자녀가 느끼는 감정을 말해 준다.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못 봐서 몹시 화가 났구나.”

자녀의 모든 감정은 수용하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한다.

“네가 안타깝고 답답한 건 알아. 그러나 깨워도 일어나지 않은 건 너에게도 책임이 있어.”

영준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들어보자.

영준 : (불멘소리로) 엄마! 어젯밤에 깨워 달랬는데 왜 안 깨웠어?

어머니 : (어이없어 하며) 깨워도 네가 안 일어났잖아!

영준 : 여러 번 흔들어 깨우면 되잖아! 어떻게 됐어? 우리나라가 이겼



어, 져어?

아버지 : 영준아, 네가 어젯밤에 월드컵 축구 결승전을 못 봐서 몹시 화가 났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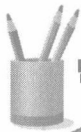
영 준 :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 : 그래, 네가 서운하고 답답하겠다. 나도 못 봤으니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어떡하나. 네가 궁금해서.

영 준 : 괜찮아요, 아버지. 학교 가서 제 친구들에게 물어 보면 돼요.

영준이는 자신의 마음속까지 깊이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후련해졌고 감정의 홍수상태에서 빠져 나와 이성의 영역이 넓어지자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교육학자들은,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서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보육자나 보호자, 양육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는 ‘격려자’로서,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학령기 자녀들에게 보호자나 양육자의 역할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는 성장하고 변하는데 부모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된 부모 역할이라고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지.



단|어|익|히|기

- 불멘소리【名】赌气的话，气话
- 어이없다【形】无可奈何，有口难辩
- 통탕거리다【自，他】噎噎，咚咚，嘭嘭
- 흘기다【他】乜斜，斜视，瞟
- 뒤죽박죽【名，副】一团糟，紊乱，乱七八糟
- 이성적【冠，名】理性的，理智的
- 수용하다【他】接受，采纳
- 제한되다【自】受限制
- 안타깝다【形】焦急，心焦，难过
- 헤아리다【他】①体谅，估量，酌量 ②数，计
- 서운하다【形】遗憾，惋惜，留恋
- 후련하다【形】舒畅，轻松，舒服
- 학령【名】学龄
- 머무르다【自】①停，停止 ②留，逗留，滞留，住
- 참되다【形】真正，真实，实在



깊게 공부하기

1. 영준이와 어머니의 첫 번째 대화와 두 번째 대화 장면을 보고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 화가 난 자녀의 감정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3. 부모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담당해야 할 역할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 다음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 기분이 뒤죽박죽 되다.
 - 감정이 홍수를 이루다.
 - 가슴이 후련해지다.

더 이야기하기

여러분이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어떤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경험과 글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바람직한 부모상과 그렇지 못한 부모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봅시다.



(2) 한복에 관해 알고 싶은 몇 가지

읽기 전에

1. 한복을 직접 보거나 입어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한복과 여러분 나라의 전통의상을 비교해 봅시다.

글 읽기

한복에 관해 알고 싶은 몇가지

박영수

우리 옛 풍습에 한복과 관련한 재미있는 풍속이 있었으니, 시집가는 신부는 반드시 모시 속적삼을 입었다는 점이다. 여름철 시원한 모시처럼 ‘시집가서 속시원히 살라’는 뜻에서 입었던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하의에 있어서는 무지기(치마 속에 입는 짙막한 통치마)만은 모시에 풀을 뺏뺏하게 먹여 입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복식은 치마와 저고리를 기본 구조로 하는 북방 계통으로, 하체에는 많이 입고 상체에는 조금밖에 입지 않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전통을 지녔다. 저고리는 북방계 옷의 공통된 특징인 곧은 깃, 왼쪽 여밈, 좁은 소매 등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치마는 추운 기후를 고려하여 온돌방에서 무릎을 세우고 앉기에 알맞게 되어 있다.

한복의 멋은 여성들의 치마 저고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비율상으로는 지



나치게 긴 옷고름과 짧은 저고리의 파격을 통해 멋을 불러일으키며, 미관상으로는 옅은 빛깔 저고리와 짙은 색 치마의 대비된 색상 조화를 통해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 준다. 실용적으로는 다른 나라 전통 의상에 비해 몸놀림이 훨씬 자유로운 넉넉함을 자랑한다. 양복은 몸에 맞지 않으면 표가 나서 입지 못하지만 한복은 웬만큼 차이가 나도 몸에 맞는다.

이 땅의 의복 양식은 한민족이 직조한 옷을 상용하기 시작한 이래 기다란 옷저고리와 통 넓은 치마를 받쳐 입는 방식으로 일관되어 왔다. 저고리 모습은 삼국 시대의 고분 벽화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저고리의 길이는 제법 길었다. 그러다가 고려 충렬왕 이후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부터 의상에도 몽고풍이 많이 가미되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저고리·두루마기같이 여머야 할 곳에는 고름을 다는 습속이 정착되었다.

띠를 대신한 고름은 단혀야 할 부분에 포인트를 주며 단조로운 형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효과를 유발했다. 또한 치마와 잘 조화된 저고리 고름은 상의가 짧고 치마가 긴 옷에 있어 연결체 구실을 했다. 고름의 효과는 장식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슬픔이 격해질 때엔 고름으로 눈시울을 닦았고, 그리던 입을 상면하면 절로 솟구치는 행복한 웃음을 고름으로 감싸 방패막이로 삼았다. 또 저고리에는 조붓하게 덧꾸민 하얀 동정을 달아 목덜미로 시선을 끌게 했으니 흰 동정은 정숙함과 아울러 성적 매력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었다.